

#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써

##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의

### 필요성

이경훈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범죄예방의 중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마치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듯이 허우적거리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다. 특히 이번 사고 희생자의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로, 아들과 딸을 잃은 유족은 물론 온 사회가 미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스러진 어린 생명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비탄에 잠겨 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각종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에 사회 전체가 떠들썩한 분위기다. 국가적으로 모든 유형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총괄 지휘할 ‘국가안전처’ 신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홍수, 태풍, 지진,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붕괴, 각종 사고 등 인적재난은 발생 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반면 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안전 위협요인’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에게 제출한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현황’<sup>\*</sup>에 따르면 2013년 1월에서 7월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모두 33만 9,186건으로 54초마다 1건 꼴로 발생하였다. 이를 범죄 종류별로 구분하면 살인은 545건으로 9시간20분24초에 한 건, 강도는 1,200건으로 6시간 14분 24초마다, 강간·강제추행은 1만 2,234건으로 25분 12초마다, 절도는 16만 2,267건으로 1분 53초, 폭력은 16만 2,940건으로 1분 52초마다 일어나는

<sup>\*</sup> 경찰청,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현황’,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것으로 나타났다. 격년마다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에서 ‘범죄발생’이 왜 매년 가장 주된 사회불안요인으로 꼽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숫자다. 그뿐 아니라 범죄로 인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막대해서 약 20조 원에 이르며, 이 중 범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손실 비용은 약 3조 7,234억 원으로 추정\*되어 화재나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행태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에게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5단계의 욕구가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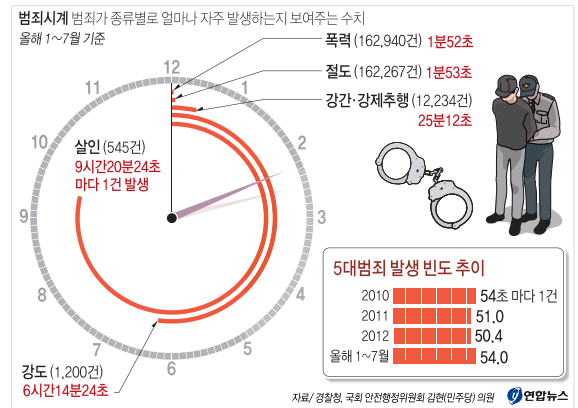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에서 기초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데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가 발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먹고 자고 하는 생리적 욕구 외에 최소한 범죄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안전한국을 지향하는 현 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복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대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수년 간 마스크의 사회면을 장식한 강력사건을 보면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약자에게 현대의 도시·건축 환경이 얼마나 큰 위협요인을 제공하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범죄발생, 혹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불안감은 우리의 일상생활 행위를 위축시키고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 서울대 산학협력단,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2009

## 5대 범죄 범죄시계 발생 현황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

전통 범죄학에서는 ‘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주된 연구문제이며, 그 답을 사회적·심리적·유전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범죄학에서는 모든 연구의 초점을 범죄자에게 맞추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업·결혼가정·빈곤 등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무한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며, 범죄자를 체포하고 교화시키려는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1980년대에 대두된 환경 범죄학에서는 ‘범죄자는 어떤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주된 연구문제이며, 범죄가 집중해서 발생하는 환경의 특성을 규명해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이러한 환경 범죄학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대두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적 도시·건축 환경에서 손쉬운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을 규명하여 그러한 기회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도시·건축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논리는 ①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②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③행위지원(activity support) ④접근통제(access control) 등의 전략을 통해 범죄의 기회구조가 제거되도록 도시·건축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일정량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리 및 디자인 사례

앞에서 언급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원리를 우리나라 전통 촌락의 공간구조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의 전통 촌락에서는 마을 내부를 관통하여 다른 마을로 연결되는 관통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마을 내부로 외부인의 불필요한 진입을 자연적으로 통제(access control)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진입로를 통해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진입로 입구에서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장승은 마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영역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전달(territorial reinforcement)한다. 이제부터는 특정 집단(마을의 주민)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들어감을 예고함으로써 그 집단의 공통적 사회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외부인에게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진입로를 따라 들어오면 초입에는 정자나무 밑에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거나 시냇가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교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외부인에 대한 자연적인 감시의 눈 역할(activity support, natural surveillance)을 하게 된다. 즉 마을 내부로 들어온 외부인은 정자나무

밀의 노인이나 빨래터의 아낙네들의 눈길을 피할 도리가 없는데, **한국 전통촌락의 공간구조** 범죄자에게는 현대도시에서의 CCTV처럼 상당히 강력한 심리적 범피억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마을 내 도로구조 역시 방어공간적 특성을 갖는다. 마을 내 도로는 진입로에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 골목을 형성하고,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달려 있는 형상처럼 몇 채의 주호가 골목을 중심으로 그루핑되어 있다. 골목을 중심으로 소수의 주호가 그루핑된 공간구조는 그루핑된 주호 간의 밀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공용공간이 일단의 주호에 의해 위요(圍繞)됨으로써 공용공간에 대한 영역적 행위를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해 주고 주호 상호간의 자연적 감시를 용이(natural surveillance)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현대도시의 공간구조는 전통 촌락의 공간구조와 판이하게 달라졌으나 이러한 방어공간적 특성, 혹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 전략은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적용될 수 있다. 기본 원리별로 그 개념과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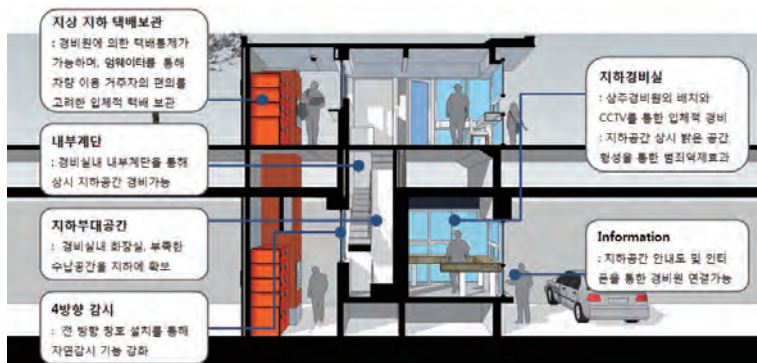
### 1) 자연적 감시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계획 시 자연적 감시기회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배치 및 설계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순찰을 통한 감시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 여부를 감시하는 등 예방과 억제에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개념이다. 아래 그림은 최근 건설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바로 주동 출입구로 진입되게



(자료: 이경훈, Chap 3, 영역성과 방어공간, '건축공간론, 기문당, 2010)

### 지하주차장의 자연적 감시기회 확대를 위한 디자인 사례



(자료: 이경훈, '대림 e-편한세상 공동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보고서', 2011)

되어 있는 데 반해 경비실은 지상에만 설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비실을 복층형으로 설계하여 지하주차장에도 감시 및 안내를 제공하도록 한 디자인 사례다. 지하주차장은 흔히 거주 기능이 없어서 범죄불안감이 높은 장소 중 하나이지만 경비실이 지하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2)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영역성 강화란 공적 영역-반공적/사적 영역-사적 영역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구성원에게는 사적 영역에 대한 책임과 관리의식을 강화하고, 외부인에게는 'keep out'이라는 사인을 주는 전략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은 필로티형 주동의 주동출입구가 필로티 하부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고 필로티 하부공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이트 월(gate wall)을 디자인하여 주동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동 출입구 전면의 공간에 영역성을 강화해 주민들의 관리의식을 높이려고 시도한 디자인이다.

## 3) 행위지원(activity support)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 필로티형 주동출입구의 영역성 강화를 위한 디자인





(자료 : 이경훈, 『개별3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보고서』, 2013)

(자료 : Be All Osaka Otemae Tower, 직접 촬영, 2009)

공공장소에 가급적 다양한 활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을 배치하여 사람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한다. 자연스러운 감시기회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위 그림과 같이 옹벽으로 인해 단절된 공간에 계단을 조성하고 조경을 하여 위 공간과 아래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외진 공간의 통행량 증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변화케 한 사례가 있다.

#### 4)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접근통제란 불필요한 접근을 디자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전략으로, 인위적 접근통제로 인한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개념이다. 위 그림은 저층 가구로 침입하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기어오르려는 절도범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주동 외벽 주변에 수공간을 조성한 사례로, 보행자를 일정거리 이격시켜 저층 가구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주는 효과와 불필요한 접근을 통제해 주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앞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입의 필요성과 기본 개념,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과거 신도시와 신시가지 위주의 개발정책과 도시경제의 구조개편에 따른 전통적 도시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구도심의 쇠퇴 및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쇠퇴한 구도심에서는 범죄가 심각한 지역 문제이며, 따라서 이러한 구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범죄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또한 과거의 하향식 도시개발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방식의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체된 도심 주거지의 활력을 재생시킴으로써 도시주거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국내 현실에서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 문제로서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최근 수년 동안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기도와 부산시 사상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2014년 5월에는 「건축법」 제53조 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법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기도 하였다.

또한 LH공사 공동주택 현상설계 평가기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여부를 배점에 반영하고,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사업승인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 여부를 연계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한국셰드트학회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제도가 정착되는 등 제도적 기반도 서서히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문가의 인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의 의무화만 성급하게 이뤄질 경우 건축가의 부담만 증대될 뿐 정작 충분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기반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건축물 심의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기까지는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심의기준과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 2) 공무원 및 실무자 교육 및 홍보

현재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교육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법문화진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교육 이수율을 지자체 평가지표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고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실제로 도시·건축공간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건축사 등 건축실무자의 교육 역시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셉테드학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건축실무자 교육을 통해 건축실무자에게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인원의 제한 등으로 파급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미 「건축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이 의무화된 시점에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이 5년간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과목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범죄예방 디자인의 개발

현재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현상설계 심사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하는 계획안을 보면 매우 개략적이고 원론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을 뿐 실질적인 디자인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범죄예방 디자인이 개발되어 건축물에 적용되고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디자인의 개발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해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심의나 평가 시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장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4)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사후 평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과성 평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 각각 최소 3년 정도의 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엄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만 그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실제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1~2년에 불과해 아직 효과성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의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이라고 해도 주거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막다른 환형도로 형태의 쿨드삭(cul-de-sac)은 외국에서는 도로를 둘러싼 주택 간의 상호 감시가 용이해서 어느 정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나 주택을 담장으로 둘러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국내 현실에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디자인 기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